-127년의 전통, 창립 60주년-

전문신문협회보

제412호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sna.or.kr 〈월간〉 代 (02)334-7251 2024년 1월 29일

한국전문신문협회 제60차 정기총회 2월 20일 개최

제31대 회장 및 임원 선출…후보자 접수 마감 2월 5일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박두환)는 2024년도 '제60차 정기총회'를 오는 2월 20일 협회 사무실 건물 지하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제31대 회장 선출'을 비롯한 협회 명칭 변경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정관개정(안)'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협회 사무국은 제30대 회장단 및 임원진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제31대 회장 및 임원 선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선거는 협회 '회장선출에 따른 규정'과 '임원선출규정'에 의거해 진행한다.

이에 신임회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접수를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했다. 회장 후보 등록은 회장선출에 따른 규정의 '제5조 회장출마 입후보 등록'을 근거로 절차에 맞게 등록을 해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회장에 출마를 원하는 사람은 총회일 7일전까지 회원사 발행인 10인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에 등록한다.(단 추천자는 1인 이상 추천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경우에는 제외시킨다)'고 나와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2월 5일(월) 오후 6시까지로 추천서를 메일(kosna1964@naver.com), 팩스(02-334-7279), 우편(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 센터 E동 407호)로 접수하면 된다.

정기총회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02-334-725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제60차 정기총회 안내 〉

- **일 시** 2024년 2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 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 센터 E동 지하1층 B106호~107호)
- **주요안건** △제31대 회장 선출 △정관개정(안) △2023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59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임원단 및 회원사 발행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회장 신년사

협회 창립 60주년 새로운 도약

갑진년(甲辰年) 새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한국 전문신문 회원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의 기운이 솟구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청룡은 오행중(木)에 봄을 관장하며 비와 구름, 바람과 천둥번개를 비롯한 날씨와 기후로 만물을 다스리는 동쪽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해가 뜨는 시점인 동쪽의 수호신인 청룡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의 상징의 메신저로서 어려운 전문언론 업계에 한줄기 희망의 불빛으로서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난해 우리 전문신문 회원사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너무도 힘든 긴 터널을 지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회원사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그간 우리 전문지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산업 발전의 선봉에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면서 대변지 역할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문 언론인으로 사명을 다해 오신 회원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대의 변화로 인해 최근에 인터넷정보와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을 바꾸어 놓고 있어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내 4대 미디어 매체로서 그 위상에 맞게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회원사도 콘텐츠의 가치가 제고되어 각 분야 전문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일 전문신문협회가 상호 교류해 온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 수년간 중단되었다가 오랜만에 양국의 전문지가 모여 정보교류와 친교를 다지며, 전문언론의 위상을 함께할 한·일 전문신문 세미나가 오는 5월 30일 천년고도 경주에서 진행하오니 회원사 모두가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전문지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국회를 비롯하여 정부 사회 각 분야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문언론 발전에 늘 함께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갑진년 청룡의 기를 받아 회원사 모두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여 회원사와 협회가 공존하면서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월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박 두 환**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가입 안내

▪ 회원가입 자격 및 절차

가. 가입자격 : 전문신문(인터넷) 발행인·대표이사 또는 발행법인

나. 가입절차 : 입회원서, 발행인 카드, 회원사 카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입회비와 함께 본 협회 사무국에 신청.

다. 회비내역 : 입회비 – 700,000원
월회비 – 90,000원 *연회비로 선납시 5% 할인

라.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9-01-1135-182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신한은행 : 100-003-283205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 문의 : 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 ☎02-334-7251~2

▪ 협회 주요사업

가. 협력업체를 통한 신문 제작, 편집, 인쇄, 발송, 홈페이지 관리 경비 절감
나. 전문신문 육성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다. 전문신문협회보 발행, 배부를 통한 홍보
라. 전문신문편람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
마. 정부공익광고·기업광고 수주 및 회원사 배정
바. 기자증 발급 및 취재편의 지원
사. 정기간행물 납본 대행 – 국립중앙도서관
아. 각종 캠페인 및 광고주/유관단체장과의 좌담회 개최
자. 경영인 세미나, 기자연수교육, 강연회 개최
차. 한국전문신문상 및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카. 정기간행물 신규 및 변경등록 대행
타. 전문신문의 이행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가스신문 명예기자 32기 입단식 갖고 본격 활동

가스신문

가스신문(발행인 양영근)은 제32기 명예기자단 입단식을 가스신문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9명의 신입 명예기자가 입단함으로써 명예기자단은 총 107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입단식에는 양영근 발행인, 김명오 단장, 임태원 사무국장, 한용훈 재무국장을 비롯해 신입 명예기자 8명이 참석했다. 신입 명예기자 가운데 황현수 이사는 직장 업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양영근 발행인은 "1992년에 처음 만들어진 명예기자단이 올해로 32년을 맞이해 감개무량하다"며 "소속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가스업계와 관련된 여러 소식을 알리는 역할과 동시에 가스업계 선·후배들과의 유기적인 만남을 통해 국내 가스산업과 가스안전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기자단 김명오 단장은 "가스신문 명예기자의 활동 구호는 관심, 참여, 사랑으로 각 지역의 명예기자 간사 및 기존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바란다"며 "지역 및 직장 리포터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하자"고 밝혔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신입 명예기자는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양성진 교수(충청)△(주)가스온현대 김도현 이사(전라) △(주)유진건철 황세주 부장(강원) △태광에너지산업(주) 박정환 부장(경남) △(유)용진가스 안준석 대표(전라) △(주)오케이엔지니어링 황현수 이사(강원) △한진에너지산업 김재영 과장(대구) △전북에너지서비스(주) 한상호 과장(전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가스정책팀 이형훈 팀장(서울)이다.

한편 이날 가스신문 한상열 편집국장은 신입 명예기자들에게 명예기자의 역할과 취재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최수연 과장은 명예기자단 밴드 가입 안내와 춘계연수회 및 추계수련회 등 연중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농촌소멸 대응 축산업 존재 가치 조명

축산신문

축산신문(발행인 이상호)은 '농촌소멸 대응과 축산업 발전전략 전문가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축산신문이 주관했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나눔축산운동본부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농촌소멸의 위험성에 대해 상기하면서 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 방안, 그 중에서도 축산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학교 박규현 교수는 축산업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 가치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농촌경제에서 축산업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전후방 산업까지 감안하면 축산업을 빼고서는 농촌의 경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농촌소멸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라고 보면 축산업의 활성화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농촌소멸의 예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반면 환경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물론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친환경적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축산업은 탄소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부산물을 처리하면서 탄소를 소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며,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야 축산업을 통한 농촌소멸의 대응 방안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주제의 발제를 맡은 아태반추동물연구소 김성진 소장(새봄농장 대표)은 미래형 축산을 통한 농촌소멸 대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김 소장은 축산의 발전이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 단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의 축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농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농촌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경제적 이유라고 보여진다. 축산은 농촌에서 그나마 안정적 소득을 올리는 작목으로 관심을 받지만 민원 문제로 어려움이 크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기술적인 도움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스마트 축산이라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최윤재 명예교수는 "어느 한 가지를 해결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농촌소멸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축산업 또한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개발된 자극기구와 치방, 방법론과 혈당검사 위치 중요성 등 특강

보건신문

보건신문 발행인이자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이 '2023년 부산(영남)지역 수지침사(인증) 연수교육'에 참석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유태우 회장은 2023년 연수교육 교재를 중심으로 고려수지침과 서금요법의 연구 필요성과 현대의학은 우수하지만 만성기 질환의 부족한 점을 서금의학으로 보충하면 이상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더욱 속히 낫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의 질병을 안전하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자원봉사에서도 안전하게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수지침이고 서금요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 개발된 K수지침의 우수성과 사용법, 그리고 응급처치법의 매우 우수함을 강조했다.

인사불성의 환자들은 우선 편안히 안정을 시키고 응급실에 급히 연락을 취하고 K수지침으로 신오기혈을 계속 자극해 조속히 정신을 회복하는데 도움주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리고 뉴 천금봉은 하체를 튼튼히 하고 오래 걸어도 숨이 덜 차는 법과 하지의 저림·마비·경련을 없애는 법과 고관절 통증의 뉴 천금봉요법은 매우 우수함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당뇨환자의 채혈 위치를 잘 선정해 출혈하면 혈당검사와 아울러 당뇨 조절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처음 소개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박규현 부산대 명예교수도 참석해 고려수지침의 '과학성과 표준성이 확실하고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의술'이라고 인사말에서 강조했다.

이물 보고 '식위법 46조' 삭제해도 관리 가능

식품음료신문

식품음료신문(발행인 이군호)은 '24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K-푸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물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학계, 업계, 소비자, 법조계, 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쳤다.

발제를 맡은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은 식품 이물 보고의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3가지 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원장은 "2009년 식품 이물 보고 의무화 실시 이후 국내 식품산업 주요 지표와 위생관리 수준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당시 대부분 식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현재는 글로벌시장에서 K-푸드의 이름을 널리 알리며 수출국으로 당당히 성장했다. 이러한 모든 지표를 고려할 때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이물보고 의무화 조항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특히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서라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에선 식품 관련 법규를 통해 이물이 혼입된 식품의 제조·가공·저장·유통·판매 등을 제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국내 이물 의무 보고 제도에 대한 3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1안은 식품위생법 제46조항 전체 삭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고대상 이물 건수가 연간 약1700여 건 감소돼 담당 부서의 행정업무도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식품업계도 이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기업의 이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은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만을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물 사체 및 배설물, 기생충 등 2~3호는 삭제다. 단 보고대상 이물크기 대상은 기존 3mm에서 7mm 이상으로 개정을 골자로 한다.

3안은 보고대상 이물크기 대상을 기존 3mm에서 7mm 이상으로 하고, 2~3호 사항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물질과 통합해 관리하는 안이다.

정 원장은 "이물 관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식약처도 업계도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다. 단 지난 14년간 업계에서도 이물 관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의무 보고에 대한 틀을 깨자는 것이다. 이미 해썹이나 리콜 등 다른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제도가 규제가 되는 불필요함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물 관리 제도를 일시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도 개선안 3안 정도는 빠르게 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 단 이를 위해서는 이물 조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 접점에서 분쟁조정 기구의 설치도 마련돼야 한다. 업계, 소비자, 학계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가능한 부분은 삭제와 수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협회보 칼럼

먼 그대, 윤석화

제31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해 장내가 술렁였다. 연극부문 특별 공로상에 이름이 불렸지만, 누구도 그가 등장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뇌종양 투병 중인 '연극계의 대모' 윤석화다. 걱정이 무색하게도 환한 미소를 띠며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왔다. "무대는 언제나 참 좋네요"라며 침묵을 깬 그는 여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이어갔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주어진 운명을 마주하는 윤석화를 보고 있노라니 그 모습에서 '문자'가 스쳐 지나갔다. '문자'는 서영은의 단편소설 '먼 그대'의 주인공이다. 과거 윤석화는 연극 '책 읽어주는 배우'로 소설 먼 그대를 무대 위로 올리기도 했다.

당시 정진홍 칼럼니스트는 "먼 그대를 모노드라마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윤석화밖에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어떤 내면의 풍경을 공유하고 있기에 이토록 겹쳐 보이는 걸까?

문자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영세한 출판사에서 교정일을 하는 여성이다. 남루한 옷차림, 매사에 순종적인 태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성실하고 금욕적인 생활 탓에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이용당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10년 동안 유부남인 한수에게 헌신하지만 대가를 받기는커녕 돈과 딸까지 빼앗긴다. 옛 동료가 봉급을 더 많이 주겠다는 조건으로 몇 차례나 이직을 제안하고, 이모가 맞선 자리를 제안해도 문자는 한사코 거절한다.

문자가 그랬듯, 윤석화도 자의적으로 쉽지 않은 길을 택한다. 첨단 기술과 현대적 치료를 뒤로 하고 병원을 나와 매일 좋은 사람들과 만나 경건히 기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등 자연 치유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자연 치료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퇴원한 이유에 대해 "하루를 살아도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나답게 살고 나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그러려면 병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온갖 풍파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먼 그대'로부터 나온다. 문자도, 윤석화도 마음속에 '먼 그대'를 품고 있다. 문자에게는 한수라는, 윤석화에게는 관객이라는 '먼 그대'가 있다. '먼 그대'는 저 너머의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먼 그대'에 닿기 위한 길은 험난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은 이들을 좌절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인내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이들을 지탱해 준다.

다만 '먼 그대'가 이들의 종착점은 아니다. 소설에서 서술됐듯, '먼 그대'는 "그녀에게 더 한층 큰 시련을 주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멀어지는 신의 등불"이다. 그러니 끝도 없이 멀어지는 먼 그대에 닿게 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지나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나아갈 것이다. 자신만의 절대적 가치를 향해. 하루를 살아도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무대 위 확신에 찬 눈빛으로 먼 곳을 응시하는 윤석화를 보며 깨달았다. 관객이라는 먼 그대를 쫓던 그는, 어느덧 함부로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어딘가에 가 있다는 사실을. 대회장으로서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 성스러운 족적을 남겨줬다는 것이 영광스러울 뿐이다. 평생 잊히지 않을 이 광경을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윤석화는 필자의 먼 그대가 되었다.

방재홍 상임고문(독서신문 발행인)

협회, 2024년 전문신문 건강걷기 개최

전문신문산우회(회장 양영근)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전문신문 건강걷기' 첫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6일 진행했으며, 한국전문신문협회 박두환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지하철 8호선 복정역 3번 출구에서 모여 탄천 유현공원을 찾아 지식 함양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수서역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트래킹하며 격무에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났다.

다음 일정은 오는 2월 3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신문 건강걷기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02-334-72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이번달 열린 '전문신문인 건강걷기'에 함께한 회원들이 트레킹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회보 칼럼모집

◈ **원고내용**
각 산업별 이슈에 맞는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

◈ **대상**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 **접수방법**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kosna, 비밀번호 kosna
[GUEST] 폴더 내 등록
메일 kosna1964@naver.com

◈ **문의**
☎ 02-334-7251~2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간전문신문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전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납본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대학 및 학회지, 정부간행물) 등
◆ 제출시기 및 부수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 제출처 :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한국전문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이 어려우신 신문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우편 및 방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문의 ☎ 02-334-7251~2

스마트건설, 건설산업 혁신 추구하는 '뉴 노멀'

한국건설신문

2016년 다보스포름의 키워드였던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흐름이 우리 건설산업에도 스마트건설이란 이름의 새로움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스마트건설의 핵심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건설신문(발행인 양기방)은 'K-스마트 건설·기술 라스트인치 서비스' 세미나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국건설신문이 주최하고 스마트건설교류회 주관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 조성민 단장이 이날 스마트건설교류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성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젊고 생산적인 스마트건설기술 생태계가 구축되면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혁신 도구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건설교류회의 스마트건설세미나는 우수한 역량과 비전을 갖춘 스타트업과 엔지니어·연구자·기업가·행정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우건설 스마트건설기술팀 변성오 부장은 "향후 건설업의 3대 키워드는 모듈화·자동화·디지털화"라고 강조하면서 "노동 집약적인 환경을 유지하면서 건설업의 성장을 바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며, 젊은 세대들이 거부하는 현재의 건설 취업 문화를 바꾸고, 건설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 기술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SSAG 박태원 대표는 "수도권 집중화에 상반하여 지방 인구소멸 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3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역이 89개,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18개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중소도시나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문화예술과 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스마트 타운을 건설이 중요하며, 인구소멸위기 대응형 스마트시티 '시루'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웍스메이트 김세원 대표이사는 "건설 일자리의 디지털 전환율은 3% 미만에 불과하며, 인력사무소를 통한 인력 알선이 주된 방법으로 이뤄지다"면서 "건설사의 현장에 필요한 적정 인력의 수급문제와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과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통해 건설인력 정보를 연결하는 '가다'라는 플랫폼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현석 박사는 한국형 BIM 협업 거버넌스를 반영한 세계 최고 수준의 BIM기반 디지털 협업 플랫폼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IaaS-PaaS-SaaS를 통합한 플랫폼을 개발했다.

최종 BIM 협업 플랫폼에서는 발주자를 위한 디지털 발주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도 연동되며,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증 현장을 선정해 플랫폼의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상용화된 수준의 플랫폼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문현석 박사는 "이번 플랫폼 개발로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황의 터널' 속 더욱 빛난 올해의 인물 7인

한국해운신문

한국해운신문(발행인 이철원)이 올해로 26회를 맞은 '올해의 인물' 시상식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했다. 이 시상식은 한해를 마감하면서 총 7개 부문(외항선사, 협회단체, 여객선, 항만산업, 내항선사, 국제물류, 해봉배순태 특별상)에서 괄목한 경영성과를 이룩하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해운인을 선정해 업적을 기리는 행사이다.

올해는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심사위원단을 이끌었다.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다음과 같다. △외항선사 부문=화이브오션 조병호 사장 △협회단체 부문=한국선급 이형철 회장 △여객선 부문=부관훼리 김정호 COO △항만산업 부문=고려항만 최현우 대표이사 △내항선사 부문=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회장 △국제물류 부문=서울항공화물 박무자 대표이사 △해봉 배순태 특별상=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최윤희 회장.

이날 이철원 발행인은 "우리 해운물류업계는 최근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한 시기에 놓여있는데 이같은 시기에 해운물류 경영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라며 "지극히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경영자들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까지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고 그를 통해 공익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는 이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 경영인들이 꼭 갖춰야 할 마음자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영광스러운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한 분들도 이 시상식을 계기로 개인의 발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해운물류업계 전반의 동반 성장을 생각해 업계가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해봉꿈이음장학재단 배동진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70년대 유신정권 도래로 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해군의 다짐'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다시금 소환해 청중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각 분야별 수상자들은 수상소감을 통해 한 목소리로 올해의 인물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정진해 내년에 더 좋은 결실을 맺겠다고 다짐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 힘찬 비상(飛上) 다짐

치의신보

치의신보(발행인 박태근)을 발행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4 신년교례회 및 2023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치과계 내외빈이 대거 참석한 올해 신년교례회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과 관련, 11년간 이어온 치과계 숙원 사업의 결실을 축하하고 나아가 치과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신년 축하 떡 커팅식을 통해 치과계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으며 오는 2025년 치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영상과 더불어 치의신보 창간 57주년을 돌아보는 기념 영상 시청이 이어지기도 했다.

기념 영상 시청 이후에는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의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지난 1966년 '칫과월보'를 제호로 창간된 치의신보는 1994년 독립채산제로 전환, 2004년 창간 38주년을 맞아 '올해의 치과인상'을 제정한 바 있다.

또 2013년 인터넷 신문을 필두로 이듬해 모바일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오픈했으며 2020년에는 영상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치의신보 TV를 개국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치과계 언론을 선도해나갈 디지털 치의신보를 론칭, 치협 회원 3만 명에게 E-book 형태의 신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알권리와 편의를 증진해 회원들의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한진규 공보이사는 "앞으로도 치의신보는 실천하는 지성, 소통하는 치과계 공기(公器)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회원 및 독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부 행사로는 '2023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및 올해의 수필상' 시상식도 치러졌다.

먼저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에는 △사회공로·문화예술 부문=안정모 원장(안정모치과의원) △봉사개인 부문=박종수 원장(박종수 치과의원), 이주석 원장(가인치과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2023 치의신보 올해의 수필상' 수상자로는 이서영 원흥행복치과의원 원장이 선정됐다. 수필상은 지난 1년간 치의신보에 게재된 수필을 심사해 한 편을 선정하는 상이다.

이 원장은 '작은아버지의 5월'이라는 글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과 격동을 겪어오면서도 굳건히 일어나 의료인으로서 진료 봉사를 펼치던 작은아버지의 모습을 유려하고 담담한 필체로 그려내 많은 이들로부터 감동과 공감을 얻었다.

회원사 개편

칼럼 새 집필진 구성

한국수산경제신문

한국수산경제신문이 새해를 맞아 칼럼 필진을 새롭게 구성해 독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로 폭넓게 구성된 새 필진은 지면 11면 칼럼 섹션을 통해 국내외 수산업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새 집필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동양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어구순환관리과장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위원 △최혜승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 이학박사 △황유선 완도수산고등학교 교장 △김욱 해양환경공단 해양사업본부장 △김옥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태환경학과 교수 △전선중 정일산업 부사장 △김종만 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박사 △김진수 경상국립대학교 해양식품공학과 교수 △고진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장양식본부장 △홍순택 (전)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전문위원 △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사업본부장〈무순〉.

한국수산경제신문은 "고정 필진뿐 아니라 현안사항에 따라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13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조희성 후보 당선

한국농업신문

한국농업신문을 발행하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제13대 회장에 조희성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천안 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열고 제13대 회장 및 부회장, 감사 등 집행부 임원진을 선출했다.

투표에는 총 300명 대의원 가운데 25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기호 2번 조희성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조희성 신임 회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쌀전업농을 이끌게 된다.

조희성 신임회장은 "한국쌀전업농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때이며 특히 쌀만큼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한다는 투쟁의식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쌀의 정체성 확립과 쌀전업농의 위상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쌀 소비자 가격 20만원이 아닌 쌀 생산자 가격 2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긴밀한 협상과 협의를 진행하겠다. 또한 쌀전업농의 조직 강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부회장 및 감사 등 중앙회 임원진도 새롭게 구성됐다. 부회장은 서규석(전북), 김동길(강원), 홍의식(경북), 박광은(전남), 이종수(충남), 정연정(경남), 김명성(특광역시), 장영철(경기) 등 8명이며, 감사에는 양동산(전남), 서승범(충북), 정영산(경북) 등 3명이다.

제13대 임원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024년 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주요 사업인 △쌀 농업 안정화 정책 강구·건의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추진 △쌀전업농 특화교육 △쌀자조금 도입 촉구 정책사업 및 토론회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임원진은 지난 1월 1일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수출물류비 폐지 대응 지원 정책 '역부족'

원예산업신문

원예산업신문(발행인 박두환)이 신년을 맞아 '기후변화 속 원예산물 수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올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일몰정책에 농가들의 우려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간접지원 정책만으로는 수출활성화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모든 종류의 농식품 수출 관련 직접지원이 올해부터 전면 폐지됐다. 이같이 정부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수출물류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관련 업계로서는 재정 부담이 커져 수출 경쟁력 저하로 당장 판로가 막힐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빈번해진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은 수시로 변동되고, 각종 생산 자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재 값은 매년 올라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대신해 수출통합조직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일기 광주원예농협 조합장은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는 국제적인 협의사항이지만 수출농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재 공동선별비 등 간접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미비해 보이고 적극적 지원방법을 발굴해 수출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현우 케이베리 대표는 "수출 계약물량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효율적인 간접 지원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수출 유지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공동물류 사업 효율화 및 CA컨테이너 이용 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 물류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현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있는 수출지원사업의 총괄관리와 수출물류비 지원폐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컨설팅, 정보제공, 바이어 알선 등 간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현장애로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수출물류비 보조폐지 등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해 금년도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속 성장 가능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발표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뉴스(발행인 김기문)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애로사항, 환경업무 담당 인력 현황, 규제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45.2%)는 의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는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담당자 없음 57.7%, 겸직자만 있음 27.1%)고 답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309개사)의 89.3%는 '환경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으나, 자격증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대부분(83.8%)이었다.

한편 조사업체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0개사)의 37.3%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 정도가 높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등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연 19대 회장에 박상욱 씨 당선

한국수산경제신문

한국수산경제신문을 발행하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9대 회장에 기호 1번 박상욱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23년 제2차 대의원총회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하고 19대 임직원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상욱 한수연 부회장과 이상구 전 감사가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서 경선을 벌였다. 대의원 투표 결과 박 후보자가 120표 가운데 63표, 이 후보자가 57표를 얻어 박 후보자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박상욱 당선자는 지난 2006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후 한수연 강릉시연합회장, 한수연 강원도연합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수연 중앙연합회 부회장,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박상욱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투명경영, 열린 한수연, 복지 한수연'을 위해 여러분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고, 듣고,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부회장 9인, 감사 2인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부회장에 강경두(전 경남도연합회장), 정성조(현 제주도연합회장), 조기현(현 전북도연합회장), 김태훈(전 경북도연합회장), 박연환(현 전남도연합회장), 김성효(현 중앙회 부회장), 이성재(현 거제시연합회장), 이동일(현 중앙회 부회장), 최영묵(현 충남도연합회 부회장) 후보가 선출됐다. 감사에는 천명조(현 남해군연합회장), 이영채(현 전남도연합회 부회장) 후보가 뽑혔다.

한편 제19대 신임 회장과 집행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 개최

세무사신문

세무사신문(발행인 구재이)을 발행하는 한국세무사회가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통일부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탈북민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는 행사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강연, 탈북 전문가 및 탈북 청년과의 대화 등 북한 경제의 내부 실태와 변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시작에 앞서 식전행사는 남북통일코리아 악단의 흥겨운 연주로 시작됐다. 남북통일코리아 악단은 탈북민 출신으로 구성된 밴드로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 대한민국' 등의 곡을 연주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김영호 장관은 탈북민 6,351명을 만나 조사한 내용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의 실태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공식소득과 비공식소득으로 나뉘는데, 텃밭을 가꾸어 얻은 농산물을 파는 상행위, 장마당 활동이나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통해 위안화나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비공식소득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며 북한의 경제 실상을 생생하게 전했다.

이후 김영호 장관, 탈북민 출신인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채윤서 동국대 회계학과 학생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북한의 재정·금융·조세체계와 주민 금융생활 실태'로 북한의 현실과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한국기독공보 창간 78주년 기념사]

독자 중심시대로 정진

안홍철 사장

지난 78년 동안 한국기독공보를 지키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 온 독자 여러분과 한국기독공보 임직원 및 전국 지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론재단이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세계 46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디지털 뉴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한국 뉴스 이용자에 초점을 두어 독자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한국 응답자 3명 중 2명(67%)은 뉴스를 접했을 때 회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이용자의 42%는 "뉴스가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뉴스 회피가 모든 뉴스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들은 국내 정치(62%), 범죄·개인 안전(21%) 등에 회피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뉴스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뉴스가 뉴스 이용자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합니다.

뉴스 이용자들은 뉴스를 회피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인 뉴스'(47%)를 가장 많이 제시했으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뉴스'(42%)를 꼽았습니다. 결국 이용자(독자)들이 뉴스를 외면하지 않게 하려면 긍정적인 뉴스를 담아내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뉴스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창간 78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공보도 뉴스 가치 기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국기독공보는 지난 6년 동안 디지털 혁신을 통해 활자 뿐 아니라 영상뉴스와 음성뉴스 서비스를 통해 '읽고·보고·듣는(3웨이) 뉴스'를 선보이는 한편 70여 년 동안 서고에서 잠자던 과거 신문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부활시켰습니다.

기존의 종이신문과 함께 하이브리드 미디어로 동반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와 한국교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이슈들 앞에선 독자들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높았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더 복잡해졌고, 독자들의 관심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환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뉴스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독자에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고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로, 즉 긍정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독자 중심 콘텐츠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2024년은 독자 중심의 해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기독공보 창간 78주년 특집-1]

'읽고, 보고, 듣는' 한국기독공보

창간 78주년을 맞이한 한국기독공보는 '읽고(text) 보고(youtube) 듣는(AI)', 3웨이(Way) 언론을 지향하며 힘찬 도약과 변화를 꾀하고 있다. 78년 간 이어온 무구한 역사를 지켜내고 자 한국교회의 오늘을 면밀히 기록할 뿐만 아니라 급속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하이브리드 미디어 혁신을 선도 중이다.

먼저 한국기독공보는 매주 발행하는 종이신문 24면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이뿐만 아니라 교단 총회를 초월한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선점하고 심층보도 한다.

창간 78주년을 맞이한 2024년에도 총회와 교계, 여전도회, 선교, 목회, 평신도, 가정예배, 문화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독자와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공감 언론으로 다가설 예정이다. 더욱이 주간신문의 특성상 정보 전달의 역할을 뛰어넘어 양질의 뉴스를 생산하며, 사회 문제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진단하고 해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자들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히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다양한 볼거리, '보는 뉴스'는 한국기독공보만의 독특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총회를 중심으로 한 교계의 소식을 전하는 '영상 뉴스'를 통해서는 텍스트 영역을 확장해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와 관련 유튜브 채널 한국기독공보에서는 절기에 맞는 '스페셜', 새신자들에게 기독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친절한 공보씨',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생생논평'과 데이터 저널리즘 '핫이슈' 등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생산된 주요 기사를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성뉴스'도 지원 중이다. 매주 음성뉴스는 업데이트 중이며, '본문듣기' 아이콘만 클릭하면 음성뉴스는 흘러나온다.

안홍철 목사는 "과거에는 뉴스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독자에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고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로, 즉 긍정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독자 중심 콘텐츠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4년은 독자 중심의 해로 더욱 정진하겠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창간 78년, 생명·평화·선교 사명 충실히 감당할 것

현존하는 국내 최고(最古) 지령 주간신문 한국기독공보가 창간 78주년을 맞았다.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창간 78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며, 선교를 이끄는 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소망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지 한국기독공보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창간 78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국기독공보는 지난 78년의 역사를 회고한 후, 디지털아카이브와 유튜브 영상뉴스 등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창간 78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한국기독공보 사장인 안홍철 목사의 인도로 이사 조주은 장로의 기도, 이사 김혁 장로의 성경봉독, 한국여전도회찬양단 에벤에셀중창단의 특송, 이사장 김의식 총회장의 말씀, 서기이사 이춘복 목사의 약사보고, 부이사장 김영걸 부총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기독공보의 3대 사명' 제하의 말씀을 전하며 한국기독공보 사시에 담긴 의미를 상기시켰다.

한국기독공보 이사장인 김의식 목사는 "한국기독공보가 다양한 미담을 발굴하고 전하면 독자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신문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시 대로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며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예배 후반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와 CTS기독교TV 사장 최현탁 장로가 축사했다. 김종생 총무는 "한국기독공보는 지난 78년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왔다"며 "독자 중심으로 변화하려는 한국기독공보가 교단지와 언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한국교회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TS 최현탁 사장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등 한국기독공보의 미디어 사업들을 보며 큰 도전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영상과 지면으로 함께 한국교회를 섬겨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선 한국기독공보 총무국 서영훈 부장대우가 근속 20년, 편집국 이호정 부장대우가 모범사원 표창, 전남지사장 박정종 장로가 모범지사장 표창을 받았다.

"기다려지는 반가운 한글 편지 같은 신문"

#10부 한꺼번에 받는 상황이지만 감사·반가움 느껴
에티오피아 송의광 선교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는 송의광 선교사는 한국기독공보의 오랜 독자다. 송 선교사는 오랜 기간동안 영은교회가 후원해 주었고, 현재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후원 한국기독공보를 받아보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송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사는 우리에게는 한국기독공보가 두세 달에 한 번씩 몰아서 배달된다"며 "10부, 15부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인쇄된 신문을 볼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라며 "한국교회의 형편도 뒤늦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참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창기에 한국기독공보를 받아보았던 때에는 거의 모든 기사를 다 읽고, 광고도 자세히 보았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한국과의 소통이 여러 방법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다보니 신문을 자세히 읽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문을 받을 때는 기쁨이 있다"며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기독공보를 받아보고 한국교회의 형편도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한 송 선교사는 "한국기독공보를 만들고 보내는 많은 분들의 수고에도 감사 드린다"며 "여러분의 수고로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전해진다"고 인사했다.

#고국에 대한 향수, 신문으로 대리만족
부룬디 한상훈 선교사

부룬디 한상훈 선교사는 "한국인의 발걸음이 드문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다 보면 고국의 소식이 그리울 때가 종종 있다"며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몇 번 두드리기만 하면 한국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겠지만, 신문지 종이에 검정 잉크로 적힌 기사를 손으로 만지며 읽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파송 당시 한국인이 거의 없었던 부룬디에 우리 가정이 정착을 한 뒤 얼마 안 되어 한국기독공보에서 신문을 부룬디로 보내주기 시작했다"며 "제가 고국에서 몸 담고 있었던 교단의 소식들, 때때로 아는 분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나오는 기사를 한국기독공보를 통해 읽으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며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곤 했다"고 전했다.

한상훈 선교사는 코로나로 인해 우편이 중단되고, 우편 시스템이 복원된 후에도 부룬디에서는 우편물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 한국기독공보 실물을 부룬디에서 받아 보지 못하고 있다.

한 선교사는 "온라인으로라도 한국기독공보를 읽으며 한국 교회 소식을 접하고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기독공보가 지금처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길 응원하며 부룬디에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인사했다.

한편 기자와 연락이 닿은 선교사 중에는 주 후원 교회가 없어 지출을 줄이는 중에 한국기독공보의 구독이 부담이 되어 중단해 아쉽다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기독공보는 해외 선교사와 시골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에게 한국기독공보 보내기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한국기독공보를 선교사나 시골의 목회자에게 보내기 원하는 이들은 한국기독공보 구독 담당 직원에게 후원을 신청하면 된다.

[회원사 신년 좌담회]

기독신문

위기론 뒤로하고 본질 되찾는 게 교회 회복 첫걸음

신년대담 두 번째는 교회 회복을 겨냥한 '회복의 시간'이다. 2024년은 앞서 다룬 총회 개혁만큼이나 교회 회복의 중요한 시점이다. 설립 100년이 지났지만 복음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와 교회목회 및 다음세대에 전력하는 장지교회 홍승영 목사를 패널로 초청한 까닭이다. 진행은 기독신문 주필 김관선 목사가 맡았다. 교회 회복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라서 진중한 대담을 예상했으나, 보기 좋게 빗나갔다. 세 명의 목회자는 마치 수십년 만에 상봉한 형제처럼 교회 회복에 대해 거침없고 열띤 대화를 꽃피웠다. 교회의 위기보다 희망을 더 많이 언급했던, 그래서 유쾌했던 이승희, 홍승영, 김관선 목사가 안내하는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자.

김관선 주필: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야 하는데, 전쟁 소식, 재난 소식, 정치인 피습사건, 북한의 도발 등으로 기대감보다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2024년 한국교회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위기라면 무엇이 문제이고, 소망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승희 목사: 위기는 늘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를 너무 부각하면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단편적으로 세울 우려가 있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감춰두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위기의 대안들을 만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그때 만든 대안들을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기를 너무 부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들 형편을 보면 복합적인 것에 얽혀 있어요. 코로나19로 예배가 흔들렸고, 저출산 때문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서 위기감을 조성하면 또 단편적인 전략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다움을 고민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더욱 주장돼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올해 아주 기본적인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교회다움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어요.

홍승영 목사: 위기론은 항상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위기라고 해야 사람들의 관심 받고 그런 글을 써야 관심을 받으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늘 위기에 대한 경고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위기라는 두려움을 많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엔 정부가 나서서 희망을 주는 캠페인도 전개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가진 위기라면 위기론에 너무 휩싸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가 위기라고 합니다. 결혼하기도 위기고, 아이 낳기도 위기라고 해요. 거꾸로 교회가 희망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건강한 시민들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선 주필: 끝으로 2024년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회복을 위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승희 목사: 교회가 덜 바빠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행사가 너무 많으면 목회자도 교인들도 피곤해져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들에게 엎드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도 너무 복잡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묵상할 수 있을지, 고민을 꺼낼 수 있을지 주저하지 않을까요. 엎드려야 교회다워져요. 교회도 목회자도 교인도 엎드려서 교회다움, 목회자다움, 교회다움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한국해운신문

28년까지 장기불황,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해야

한국해운신문은 '해운산업 회고와 전망'과 '외항해운업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신년특집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해운산업에 대한 회고와 전망, 해운업계의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해운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도출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떠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패널로는 금창원 장금상선 사장, 김성익 SK해운 사장, 안중호 팬오션 사장, 윤민현 박사(한국해사포럼 명예회장), 이승우 KSS해운 사장, 조병호 화이브오션 사장 등의 참석했다. 사회는 이철원 한국해운신문 발행인이 맡아 진행했다.

2023년은 예상하기는 했지만 훨씬 어려운 한해였다. 20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호황으로 누리다가 엔데믹으로 단기간내 운임이 급락하면서 해운업계는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운임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달러로 선박금융을 조달하는 선사들의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23년 한해를 더욱 힘들게 한 요인이었다.

다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중남미지역의 가뭄으로 파나마운하가 통항제한 조치에 들어가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홍해지역에서 예멘 후티반군의 일반상선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격이 진행되면서 선박들이 우회항로를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운임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2023년은 해운시황이 수급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후 리스크, 지정학적 리크스 등 외생 변수에 따라 공급망 왜곡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은 한해로 기록되게 됐다.

그렇다면 2024년 해운시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패널들은 수급상황만 놓고 보면 2023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실제 시황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컨데이너선의 경우 신조 발주량이 워낙 많아 공급과잉이 2028년까지 이어져 장기 불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나 미연준이 2024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회복되면 시황이 다소 개설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벌크선은 신조 발주량이 크지 않아 수요가 어떻게 되살아나느냐가 관건인데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 2024년 하반기부터 상승해 전체적으로 2023년보다는 조금 회복될 것으로 예측됐다. 탱커 부문은 신조 발주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톤마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4년에도 호황이 이어질 것 같으로 전망됐다.

패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생병수 영향으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며 앞으로 해운업계가 직면하게 될 탈탄소화 문제에 잘 대응해 나가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외에도 패널들은 2024년 일몰되는 톤세제도 연장과 심각한 선원 공급 부족 문제 해결방안, 중소선사 금융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광신문

좌담회로 모이는 발걸음이 미래와 승리 연다

김인수 이사장= 이케다 선생님은 "좌담회라는 불도수행 없이 지금의 나는 없다" "좌담회야말로 '광선유포의 출발'이다" "좌담회로 모이는 한사람 한사람의 발걸음이 무수한 미래와 승리를 연다"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좌담회의 중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좌담회에는 '근행창제' '교학연찬' '포교' '인간혁명' '숙명전환' 등 자타 함께 행복을 이루는 모든 실천이 깃들어 있습니다.

김효진 청년부장= 올해 3월에 개최하는 '세계청년 좌담회 총회'도 학회의 가장 기본인 좌담회를 청년부 총회로 열어 한 번의 회합 참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연대를 맺기 위함입니다. 특히, 청년부는 '이케다 선생님 청년실장 취임' 7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의의를 새겨 모두가 청년실장이라는 자각으로 도전해 스승의 정신을 체현하는 후계로 성장합시다.

김동섭 남자부장= 남자부는 신체제로 전환 후 전국의 권 이상 간부들이 리더솔선으로 우호확대와 포교에 도전하며 연초를 시작했습니다. 3월 '세계청년 좌담회 총회'까지 '3만 대화운동'으로 우인을 지속적해서 확대하고 포교한 '나의 우인'과 함께 좌담회 참석과 근행·창제 실천에 도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정규좌담회 참석인원을 최대로 만들어 제자의 승리를 전하겠습니다.

황해정 여자부장= 여자부도 좌담회를 성장의 무대라고 정해 교학, 포교, 육성 모두를 좌담회로 확립합니다. '세계청년 좌담회 총회'까지 좌담회를 중심으로 공덕과 체험을 만들고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격려에 도전해 포교의 결실을 보여 행복해지는 인재를 확대하겠습니다.

김경희 부인부장= 2030년의 주역인 청년부와 미래부가 마음껏 활약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부인부는 2025년을 향한 '세계청년학회 좌담회' 도전을 화광신문과 월간 '법련'을 활용해 1인 '10명의 진정한 우인 만들기' '1명 포교'에 승리해 세계모범의 좌담회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세계청년학회의 승리는 좌담회에 있다고 정해 정규좌담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의 참석자를 위한 맞춤형 좌담회, 한 사람을 소중히 격려하는 방문좌담회에도 도전합니다. 모두가 좌담회에서 성장해 좌담회에서 공덕 받고, 좌담회로 인재를 육성하는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이명철 장년부장= 장년부도 좌담회 승리를 위해 리더부터 소속의 회원·회우를 세심하게 챙기고, 정규좌담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2차주에 하는 다양한 좌담회를 비롯해 황금부원회 추가 참석에 도전합니다. 또 우호좌담회를 꾸준히 열어 향후 정규좌담회로 연계되도록 하고, 특히 '75일 도전'으로 입회한 신입회원은 반드시 좌담회에 참석하도록 격려해 '대왕성반' 구축에 앞장섭니다. 전통의 2월 '지역 단위 황금부원회'는 75일 도전의 중간 점검과 지역 간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으로 해, 다가오는 4월 '장년부 패밀리 좌담회 총회'의 대승리를 위한 지역, 지부, 지구 간부의 이체동심의 마디로 새깁니다.

김인수 이사장= 2025년 7월까지 전개하는 '세계청년학회 좌담회' 도전은 'SGI 결성' 50주년을 향해 우리 지역에서 좌담회를 반석과 같이 부흥시키는 존귀한 도전입니다. 바로 그 좌담회에 모이는 사람, 즉 4부의 활동 멤버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입회원을 육성하며 각 가정에서 행복을 확대하는 도전입니다. 청년을 필두로 인재 확대, 행복 확대를 이뤄 자신이 있는 그곳에 반석과 같은 청년학회를 만드는 도전을 잘 부탁합니다.

기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2024 신년 기획특집

전문신문 각 산업별 희망찬 새해를 조명하며 도약을 꿈꾸다

2023년 견리망의(見利忘義)의 해가 저물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의 해가 떠올랐다. 각 산업계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에 전문신문도 움츠려든 어깨를 펴고 팩트에 입각한 정직한 기사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이에 본 협회보는 각 산업별 전문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을 조명하며 올해 전문신문이 발전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 정리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기독교신문

현지인중심의 동반자적 선교전환 시급

기독교신문(발행인 진문일)은 지난 12월 27일 기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 속 선교방향에 대한 신년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은 교회도 크게 받았다. 코로나로 인한 대면예배 제한이 대표적인 예였다. 선교사역에서도 큰 피해를 입게 됐다. 많은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쉬는 일이 있었다. 여기에 코로나시기에 다양한 지역에서 전쟁과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면서 선교현장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선교가 현지인중심의 동반자적인 선교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파송단체들이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에 더욱 힘을 실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선교지에 산적한 문제 중 하나는 기후위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난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지구와 선교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선교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교사의 인식조사 설문에 따르면 선교사들의 94%가 기후위기에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선교계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담론도 한국교회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계기독교라는 개념이다. 이 담론은 서구중심의 기독교가 끝났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인 중심의 선교가 아닌 내부인 중심의 선교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두되는 것이 현지인중심의 동반자적 선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인 홍경환목사는 "우리는 현지교회와 교단의 경험에 기초한 조언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중 가장 강력한 요구가 일방적으로 주고 가르치는 식의 군림하는 선교가 아니라 동반자로 협력하는 선교이다"라고 말했다.

■ 농기자재신문

소통과 신뢰로 지역사회와 함께 3대째 가업을 잇다

농기자재신문(발행인 박경숙)은 지난 1월 1일 기사를 통해 100년 가업을 잇는 농업 파수꾼을 찾아 소개하는 신년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북 문경시에 자리한 새재농자재상사 박영주 대표는 지역 농업인과 소통을 바탕으로 3대째 우수한 품질의 농자재를 공급하며 가업으로 잇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 활동과 봉사를 통해 공헌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박영주 대표는 "어려서부터 선친의 사업을 보고 자라면서 농자재 유통업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며 "유통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과의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이익 우선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정직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처방의 과학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농업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주 대표는 선친 때부터 50년째 가업을 이어 오면서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인과 소통하며, 지역 특성과 작물에 맞는 적합 처방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오미자 특구에 맞는 방제력을 보급했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과 방제력도 토양, 기후, 수질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해 보급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를 통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기는 역할을 주도하기도 했다.

3대째 가업을 이어갈 박영주 대표의 아들 박희준 대표는 "유통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할아버지 때부터 지역사회를 지키며 가업을 이어오신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며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인은 물론 제조회사 및 지역 관계기관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향후 100년 기업으로 지속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 농축유통신문

가루쌀 정책 현주소 가루쌀 활성화 정책 쌀 산업 새로운 이정표 제시

농축유통신문(발행인 강신영)은 지난 1월 1일 기사를 통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를 전망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농정 중 하나가 바로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일 것이다.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을 개선하고, 새로운 식품 원료를 활용한 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쌀가공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을 중장기적으로 연간 밀수요 200만 톤의 10% 수준까지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책 추진결과 원료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이 2,000ha로 전년 대비 20배 이상 확대돼 밥쌀 1만 톤 감소 효과 및 식품 원료 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식품부는 고품질 가루쌀의 안정생산을 위해 단지화를 지원해 농가를 조직하고 공동 영농하도록 구조를 만들었으며, 아울러 현장기술지원단을 통해 기술 지도를 병행해 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가루쌀 재배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실제 현장의 농가들은 가루쌀 재배가 일반 벼 재배와 다르지 않아 소득 향상만 지속된다면 가루쌀 재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이 2023년 한 해 동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4년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가루쌀 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보다 활발한 지원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물류신문

사방신으로 본 2024 물류 전망

물류신문(발행인 장대용)은 지난 1월 2일 기사를 통해 올해 물류 업계를 전망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은 지난해 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편에서는 IMF보다 더한 한파가 불어 닥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위기설과 불안이 공존하는 2024년이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위기 속의 기회를 찾아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켜왔다.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이다. 용은 십지지신 중 유일한 상상의 동물로 풍요와 안전을 상징한다. 동아시아서 용은 상서롭고 신령한 동물이다. 그 중 모든 용들의 리더인 청룡은 동아시아에서 각 방위를 상징하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일컫는 사신 또는 사방신의 리더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용이 깃든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액을 물리치고 재복과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2024년은 모든 용들과 사방신의 리더인 청룡의 해로, 용이 깃든 해이다. 물류신문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풍요롭고 안전한 2024년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신년 기획 '사방신으로 본 2024물류 전망'을 준비했다. 현실적인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고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청룡을 비롯한 사방신의 기운을 얻어 물류산업이 한 걸음 더 성장 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병원신문

2024년 갑진년 병원계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 융합'

병원신문(발행인 윤동섭)은 지난 1월 2일 기사를 통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바라보는 병원업계 키워드를 정리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주요 병원들은 핵심 키워드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융합'을 꼽고 지난해보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성장을 이어 가자'고 밝혔다. 홍창권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도 2024년은 의료계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희망적이지 만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다. 국내 최대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보유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CMC)은 2024년 목표를 '융합혁신' 기반의 미래 경쟁력 창출로 삼았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융합'과 '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래선도병원으로의 도약하겠다는 의지다. 삼성서울병원은 2024년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 확보 등 전환기를 맞는 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교직원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개원 30주년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는 아주대학교 의료원은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해 주목된다.

■ 식품외식경제

'평균 실종' 시대, 소비 양극화… "초저가 vs 프리미엄"

식품외식경제(발행인 박형희)는 지난 1월 18일 기사를 통해 식품·외식·유통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 보도했

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엔데믹 시대와 함께 시작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기불황이 식품·외식업계의 소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성비를 뛰어넘은 초저가의 '가격 파괴' 제품과 '짠테크(짠돌이+재테크)'가 성행하는가 하면 평소 접하기 힘든 특별한 한 끼나 프리미엄 제품을 추구하는 '플렉스' 소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비용 절감을 위해 평일에는 최대한 식비를 아꼈다가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는 한 끼라도 값비싼 식사나 프리미엄 제품을 즐기는 이른바 '응축소비'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1만 원대 이하의 가성비 케이크부터 수십만 원대의 호텔 케이크까지 등장하는 등 케이크 소비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햄버거 업계의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다. 2000원대 단품 버거와 4000원대 세트로 초가성비 전략을 내세우는 업체와 2~5만 원에 육박하는 세트로 프리미엄을 강조하는 업체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존폐 위기를 맞았던 뷔페업계가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부활하는 모양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외식 물가로 인해 정해진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뷔페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커피업계 역시 저가커피와 고급 브랜드 커피로 소비가 양극화되면서 중간 가격대의 평범한 카페들은 포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됐다. 이처럼 포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프로모션을 통해 1000원대 저가커피보다 더 저렴한 커피를 판매하거나 프리미엄 딱지를 붙여 고가의 커피를 내놓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 어패럴뉴스

'밀레니얼 디렉터스의 시대'

어패럴뉴스(발행인 김상무)는 지난 1월 1일 기사를 통해 최근 부상한 패션 브랜드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렉토, 아모멘토, 오르, 잉크, 샌드베이지, 그리고 시에, 시엔느, 타낫, 마뗑킴에 이르기까지 최근 부상한 브랜드들은 2015년과 2021년 사이 대부분 런칭됐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일상화, 국내와 해외를 가르는 심리적 경계의 파괴가 급속히 진행된 바로 그 시기다.

그리고 이들은 코로나로 발이 묶인 3년간 온라인을 통해 꾸준히 컬렉션을 발표하고, 자사몰과 SNS를 통해 팬덤을 쌓았다. 그리고 다시 오프라인이 열리자, 직영점과 백화점으로 그 팬덤과 열망이 쏟아져 나왔다. 온라인 세계를 기반으로, 비즈니스의 문법이 통째로 바뀌고 있었지만, 제도권은 그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일단 그 브랜드들을 이끄는 주역들이 30~40대의 밀레니얼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K패션 씬의 주류로 부상한 그들의 공통점을 들여다보면, 이 시대 패션 비즈니스의 문법이 읽힌다. 레거시 기업들에게도 힌트가 될 수 있다.

코로나 이전까지 국내 패션은 디자인 산업이 아닌, 유통 산업에 더 가까웠다. 백화점에 의존해 트렌드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의 비즈니스였다. 당연히 디자이너 출신 대표가 이끄는 기업이 주류로 올라선 경우가 드물다 못해 희귀했다. 세상은 디자이너들이 조직 관리나 영업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이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다.

이들에게 백화점은 필수 코스가 아니다. 자사몰과 직영점 1~2개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이미 올리고 있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에게 해외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SNS와 함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곳은 바로 자사몰이다. 연간 수백억 원의 자사몰은 '팬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곳에 쌓이는 데이터는 그 자체로 크리에이티브 작업의 원천이 된다.

■ 의학신문

1999년 이후 시행 중인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

의학신문(발행인 박연준)은 지난 1월 2일 2024년도 제약바이오산업 대도약을 향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지속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에 예측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광희 본부장의 도움말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살펴봤다.

정부는 1999년 실거래가제도 도입에 이어 2002년 해외 약가재평가, 2006년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 약가 인하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도입, 2007년 기등재 목록 정비, 2012년 일괄 약가인하, 2020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및 기준요건 재평가 등 지속적으로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도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와 실거래가제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여러 기전의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해외 약가비교 재평가 시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속된 약가인하 정책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청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약 및 제네릭의약품이 없는 오리지널의약품의 청구 비중은 증가했다.

또한 약가인하에 따른 원가 경쟁 심화로 저가 해외 원료의약품 도입이 늘어나면서 원료 자급도도 하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시행 예정인 해외 약가비교 재평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 3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섰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약제군별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해 정기적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이며, 개선된 외국약가 참조기준을 토대로 해외 약가 참조 재평가를 위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재정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돼 제약바이오기업들은 해외 약가비교 재평가제도가 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축산경제신문

ESG경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축산경제신문(발행인 김일호)은 지난 12월 29일 기사를 통해 축산업계에서 바라보는 ESG를 살펴봤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고 있기에 그렇다.

축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생산하기만 하면 팔리던 양적 성장의 시대는 이제 품질이 우수하지 않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질적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환경의 변화를 가장 늦게 체감하는 이도 농부다. 축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변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용어도 어려운 'ESG 경영'이란다. 기업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던 이 용어가 자신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ESG 경영과 친환경은 다른 의미도 아니다. 그러니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없다. 가장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조금 유식한 티를 내는 사람들이 그 유식을 자랑하기 위해 만든 용어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까? 그들에게는 평범을 특별하게 표현하는 참으로 특별난 재주가 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복잡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축산 관련 기업들과 달리 보다 단순한 축산농가에게 ESG 경영이란, 가축을 기르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완수할 수 있는 일이다.

주변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어떤 현상으로 나타는지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다. 바로 축산업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세계 1위가 5분의 1 장악' 컨선복량 3000만TEU시대 열린다

코리아쉬핑가제트(발행인 이우근)는 지난 1월 3일 기사를 통해 2024년 해운시장의 미래를 전망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사들이 코로나 사태 동안 무더기로 발주한 선박이 해운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올해 선복량 3000만TEU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년 새 선단을 100만TEU 가까이 늘린 세계 1위 스위스 MSC 등 글로벌 선사들이 선복량 증가세를 주도한 결과다.

우리나라 HMM도 25만TEU를 웃도는 발주잔량을 기록, 내년 이후 100만TEU 선사에 합류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도 컨테이너선사들의 선복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컨테이너선사들의 몸집은 더욱 불어났다.

20대 선사들의 선복량은 2571만5000TEU를 기록, 전년 2388만6000TEU에서 7.7% 증가했다. 전년 대비 약 183만TEU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2500만TEU를 돌파했다.

20대 선사 중에서 머스크와 우리나라 HMM, 싱가포르 PIL, 중국 SITC, 이란 이리슬그룹, 중국 중구로지스틱스 등 6곳을 제외한 14곳이 1년 새 선복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HMM도 26만5000TEU의 발주잔량을 기록, 조만간 100만TEU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금상선의 발주잔고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존 선대 대비 발주잔량 비율이 52.5%로 향후 신조선을 인도받으면 순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 한의신문

2024 갑진년, 한의계 트렌드 키워드는?

한의신문(발행인 홍주의)은 지난 1월 5일 기사를 통해 2024년 한의계가 주목해야 할 8대 키워드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오간 지난해 국내 보건의료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 또한 4.10 총선, 인공지능(AI)산업의 개화 등으로 인해 많은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한의계도 한의대 정원 축소 이슈, 한의약육성법 개정, 현대 진단기기 본격 활용 등 많은 제도적·법률적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신문의 영문명인 AKOMNEWS(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News) 알파벳에 맞춰 2024년 한의계 8대 키워드를 제시한다.

△Advances in Digital Healthcare-한의학과 디지털기술 융합 △Knowledge Enhancement through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연구 활용 △Optimized Personalized Treatments-개인 맞춤형 치료 △Modern Ultrasound Usage-초음파 사용 △Noblesse Oblige-한의사의 사회적 책임감 △Expanding Globally-한의학의 세계화 △Widening Insurance Coverage-한의 건강보험 확대 △Senior Health-고령화 사회에서 한의학 필요성 대두.

■ 화장품신문

화장품신문 선정 올해의 뷰티 키워드 '7'

화장품신문(발행인 함용헌)은 지난 1월 2일 기사를 통해 화장품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뷰티 키워드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뷰티누리 화장품신문은 올해 뷰티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일곱 가지 키워드를 선정했다. 뷰티와 웰니스, 여성과 남성, MZ와 시니어, 패션과 뷰티 등 올해는 각 카테고리를 구분짓는 경계가 흐릿해질 전망이다.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낸다. 뷰티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여성 화장품을 향유하는 남성이 늘고, 남성 화장품 트렌드를 받아들인 뷰티 트렌드가 꽃을 피운다. 유행을 선도하는 세대에 장·노년층이 편입되며, 패션과 뷰티는 더욱 밀접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 싸이케어(PSYCARE)=싸이케어는 뷰티 카테고리가 정신적 웰빙, 웰니스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을 뜻한다. 싸이케어는 개인적이면서도 외부 지향적인 뷰티 카테고리를 통해 이를 해결할 방법을 탐색한다.

◇ 지속가능성=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지속가능성은 전 산업계에서 외면할 수 없는 필수 목표가 됐다. 친환경 공정을 위한 각종 규제는 올해 부쩍 늘어난다.

◇ 수출국 다변화=팬데믹이란 고비를 힘겹게 넘어온 K뷰티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했다. 국내 업계는 중국을 대체할 해외 시장 물색에 나섰고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노력이 더욱 폭넓게 펼쳐질 예정이다.

◇ 소비 양극화=지난해 전쟁이 터지고, 인플레이션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이 반복됐다.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여유 자금이 줄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필수재가 아닌 소비재에 속하는 화장품이 그 영향을 직격으로 맞았다.

◇ 맨즈뷰티=남성 화장품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앞으로 3년 내 1.5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 특히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은 주요 해외 시장에 비해서도 빠르고 진보적인 편이다.

◇ 시니어 소비자=업계가 모두 MZ세대의 유행을 좇아가고 있을 때, 조용히 구매력을 발휘하는 집단이 있다. 50대 이상의 시니어층이 바로 그들이다. 시니어층은 충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 브랜드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 매출을 책임진다.

◇ 미니멀리즘=그동안 유행하던 Y2K 패션이 서서히 저무는 모양새다. 대신 미니멀하고 꾸밈이 과하지 않은 단정한 패션이 '올드머니'란 이름을 달고 유행을 이끌고 있다. 패션과 뷰티는 실과 바늘이다. 뷰티에도 미니멀리즘 혁신이 당도했다.

| 현장·단독 |

내 차 정보가 새고 있다…'국가 전산망'도 팔아 먹나

일부 자동차 민간검사소가 개인 연락처를 불법으로 수집해 검사 유효기간이 임박한 고객에게 할인 혜택 등을 미끼로 불법 호객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C정비환경정밀검사장(이하 C검사장) 관계자는 최근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검사 비용 할인을 명목으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검사소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내지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를 했다.

C검사장 측은 개인의 연락처를 취득한 경위를 묻는 A씨에게 본인들이 주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연락처를 습득해 임의로 전화했다고 밝히면서 제보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전화를 급히 끊었다. 자동차검사소에서 조직적으로 인근 아파트 등 주거지에 주차된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모아 전산망을 이용해 검사 유효기간이 임박한 차주에게 검사비 할인 안내를 동반한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는 정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은 해당 사업에 관해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주차된 차량에서 임의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과정뿐만이 아니다. 어떤 차량이 자동차검사 기간이 다가오는 영업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선 전산망을 이용해 차량 등록 및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영업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동차검사 전산망이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가 다가오는 차주에게 검사주기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한 모든 지정검사소를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러나 C검사장에서는 본인 사업의 수익을 목적으로 국토부 정부전산망에서 개인의 허락 없이 정보를 조회한 후 영업을 목적으로 불법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실제 전국의 검사소와 지정 정비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자동차검사 전산망은 운영 주체가 교통안전공단이다. 현재의 자동차검사 전산망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6항 제4호에 의해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 등 관리 감독기관이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임의로 전산망에 접속가능한 상태에서 불법호객행위를 위한 전산망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1월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는 소속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부가 조만간 지정정비사업의 검사업무 철저 시행 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당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확보해 차량소유주에게 검사안내(안내문 또는 문자발송 등) 및 업체홍보를 하는 행위 등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무단 수집 및 활용 등)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호객행위 등)으로 강력한 처벌 조치 대상이므로 지정정비사업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안내를 했다.

이러한 공문을 통해서도 관리 감독 주체인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미 만연한 불법호객행위를 인식했지만 '눈감아주기식 행정' 등으로 사실상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행위를 방관한 모양새가 됐다.

A씨는 "이러한 일은 어제오늘 행해진 일이 아니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수년 동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독 관할 관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러한 불법호객행위를 용납한다면 향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목적을 잃어버린 부실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공단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도 국토부 등 감독기관에 개선 등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민간사업소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며 "우리는 단지 위탁받은 자동차 검사업무만 수행할 뿐이다. 오히려 권한이 없는 일을 하면 월권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민간검사소 사업자 및 사업체 지정 운영관리 감독 주체는 교통안전공단이 아닌 해당 지자체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와 제77조에 의한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감독 권한이 위임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검사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업계 내에서는 예전부터 다들 알면서도 쉬쉬해 온 일"이라며 "국토부나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민간사업소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고 교통안전공단도 민간업체들이 자동차검사 전산망에서 개인 정보를 빼돌려 영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이뉴스투데이(1월 17일) 김덕형 기자

"짧지만 깊게" 성경묵상도 '숏폼 시대'

저문 해를 뒤로 하고, 신년에 들려주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시기다. 새해 주실 첫 말씀을 기대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비장한 다짐으로 1년 성경 통독 계획을 세우지만, 현실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모바일 앱을 켜는 모습. 작은 화면 안에 15초~1분 내외 짧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쏟아진다.

바야흐로 '숏폼시대'. 피할 수 없다면 이용하라. 숏폼시대에도 포기할 수 없는 성경 묵상 아이디어를 나눈다.

플랫폼 속 넘치는 성경 말씀

인스타그램에서는 짧고 굵은 메시지들이 신앙 가진 사람들 마음을 터치한다. 개인적인 성경 묵상을 기록하는 성도, 에세이 카드뉴스 방식으로 말씀 전하는 목회자, 선교지 소식을 사진으로 전하는 선교사, 일상툰, 그림, 캘리그라피 등으로 묵상을 공유하는 예술가, 가정 안 신앙 교육 방법을 나누는 사모 등 다양한 계정이 활동 중이다.

독특한 점은 성경 구절과 신앙 콘텐츠를 찾아보면 볼수록 알고리즘이 더 많은 성경 묵상 관련 계정으로 안내한다는 사실. 숏폼 콘텐츠를 성경 묵상에 활용하기 좋은 이유기도 하다.

배우 신애라 씨는 유튜브 채널 '신애라이프 오디오성경'을 통해 3년 전부터 성경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친정어머니가 병중에 있을 때도 그랬고, 시각장애인이나 병중인 분, 운전하는 중에라도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라며 채널을 통해 성경을 읽게 된 계기를 밝혔다.

오디오 바이블, 듣는 성경 등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친근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성경, 또박또박 아나운서 목소리로 선명하게 듣는 성경, 존경하는 목회자가 읽는 성경을 내 손 안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시대 들어 누릴 수 있게 된 혜택이다. 유튜브에서 '성경 읽기' '성경 낭독' '성경 듣기' '성경 묵상' 등 키워드로 검색해 원하는 채널을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다.

다양한 앱, 묵상 돕는 모바일 도구

대표적인 성경 앱으로 알려진 '갓피플성경' 앱에는 새해 첫날부터 '기도가 먼저다'라는 성경 통독 프로젝트가 열렸다. 앱 하단 '모임' 탭에 잠언, 시편, 요한복음 등으로 진행하는 성경 통독 모임 목록이 있다. 이중 원하는 모임에 '나도 참여하기'를 누르면, 그 날부터 매일 성경 읽기 도전 시작이다.

오늘 자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의 이모티콘이 화면 맨 위에 표시되고, 지금 읽고 있는 사람 수도 나타난다. 각자 다른 곳에 있어도, 함께 성경 읽는 사람들이 보인다. 성경을 읽은 후 '한줄감사', '한줄묵상' 등을 댓글로 남길 수 있다. 서로 얼굴은 몰라도, 함께 성경 읽는 신앙인들이 생각을 나누는 간편한 방법이다.

다양한 단체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PRS)'에 활용하는 '드라마 바이블' 앱이 있다. 성경 전체를 연결해 규칙적인 리듬으로 꾸준히 성경을 묵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감 나는 성우·연기자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줘 '듣는 성경'의 매력에 빠진다.

묵상 플랜, 북마크, 하이라이트, 노트 기록 등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정 시간 성경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타이머 기능, 읽는 진도를 표시하거나 순서를 손쉽게 변경할 수도 있어 사용자가 묵상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AI 기술 활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초원'앱을 개발한 김민준 대표는 "크리스천의 묵상과 교제를 돕기 위한 데일리 앱 '초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앱에서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성경 구절을 검색한다던가, 성경적 답변이 궁금할 때 '질문하기' 기능을 이용해 궁금증을 풀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반복적·기계적 영역에서 최첨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앙 독서, 동영상, 교육 콘텐츠 가득

이외에도 두란노 '두플러스'에서는 두란노와 홍성사의 전자책, 생명의 삶, 빛과 소금, 목회와 신학 등 유명한 월간지 등을 구독해 읽을 수 있고, 전문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 설교 자료, 성경 주석 검색, 세대별 언어별 QT 서비스를 제공한다. CGNTV가 3년 전 오픈한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Fondant)'은 모바일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앙 서적을 오디오북으로 제공하고 독서 모임을 운영할 수 있게 한 'Just Show Up 북클럽' 앱도 있다.

바쁜 일상, 짧은 순간에도 말씀을 소화하는 일부터 개인의 신앙생활과 습관 관리, 공동체 모임 독려 수단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숏폼 도구들이 다양하다. 이미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이 깊이 있는 성경 묵상을 위한 마중물로 활발히 이용 중이다.

기사제공: 한국성결신문(1월 10일) 홍지혜 기자

| 현장·단독 |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여러분은 잘 산 겁니다”

산악인 엄홍길과 도봉산에 올랐다. 지난 12월 26일 새해를 앞두고 눈이 내렸다. 중턱에는 천축사(天竺寺)가 있다. 40분 정도 등산하면 만날 수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아꼈던 천년고찰이다. 엄홍길 대장은 반나절 동안 천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한 그는 알다시피 산(山)으로 대표되는 인물이다. 산으로 성취를 얻었고 산으로 유명해졌다. 하얀 산길에서 마주치는 등산객들마다 기념촬영을 해주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에는 절이 있다. 산과 가까워지면서 절과 가까워졌다. 불교와 가까워졌고 2018년 불자대상을 받았다. 엄 대장은 스님들 앞에서 스스로를 산이라 했고 인터뷰 내내 산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것은 절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변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천축사에서의 시간은 그 각오에 나무를 몇 그루 더 심어주었다.

‘버림’ ‘비움’ ‘내려놓음’

천축사에 오르자 갑자기 한기가 잦아졌다. 주지 인오스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손수 달인 무차를 건넸다. “바람도 엄홍길 대장님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는 즐거운 인사에 엄 대장은 “무차 덕분에 무아지경”이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수련복으로 갈아입은 엄 대장은 대웅전으로 향했다. 사시예불 참석이 첫 번째 프로그램. 인오스님은 친절하고 쾌활하다. 흡사 노래를 하듯이 염불을 한다. 트로트를 부르듯 음성을 꺾고 높인다. 열정의 염불이고 젊음의 염불이다. 재미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말끝마다 불교로 마무리된다.

엄 대장은 스님의 법시(法施)에 정성을 다해 응대했다. 합장과 삼배는 누가 봐도 절절하다. 그는 정말로 대장의 말투와 걸음걸이를 지녔다. 등산하는 가운데 느꼈다. 뭔가 돌진하면서 나아가는 듯한 보행습관이다. 투박하지만 ‘형님’처럼 말한다. 여전히 밥 먹듯이 산에 가는 게 일상이지만,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겸허히 대한다. 에베레스트에 비하면 도봉산은 쉽게 오르겠다는 질문에 “땀에 흠뻑 젖었다. 힘들지 않은 산은 없다”는 대답이 옹골지게 돌아왔다. 군장 같은 배낭이 매사에 진지한 성품을 보여준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은 따로 없다. 모든 일이 등반처럼 절실해야 한다. 작은 일들이 쌓여야 비로소 큰 일이 된다.

인오스님은 ‘버림’과 ‘비움’과 ‘내려놓음’의 철학을 갖고 있다. 천축사 템플스테이에 흐르는 기조다. 버려야, 이룬다. 유난히 열려 있는 템플스테이고 쉼표를 강조하는 템플스테이다. 일례로 참가자들이 오면 법당에 ‘눕히는’ 것부터 시작한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일단 쉬라고 다독인다. 처음엔 생경해하고 불경스러워하지만 결국엔 눈물을 줄줄 흘린다는 게 스님의 전언이다.

답은 언제나 삶 속에 있다

그렇게 응어리를 털어내면 이른바 ‘좋은 생각 먹여주기’에 나선다. 삶은 막막하고 답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은 본래 괴력을 지녔다.

108염주 만들기는 템플스테이의 단골 프로그램이다. 천축사에서는 특이하게도 염주 ‘꿰기’가 아니라 ‘빼기’부터 한다. 지도법사 도울스님이 그 의미를 설명했다. 법명은 순우리말이다. 주지 스님의 인생관에서 한 치도 빗나가지 않는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하니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은 빈대떡이, 맑은 날은 냉면이 먹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데, 왜 남의 마음은 나에게 한결같길 바라나요?”

가족이 친구들이 ’내 맘 같지 않다‘며 하소연하는 20대들에게 언니와 누나가 되어 들려주는 조언이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예쁘다 밉다 너다 나다… 이분법은 실체가 아니라 고집일 뿐이다.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천축사의 ‘빼기’는 나를 사랑하기 위한 ‘빼기’다. 엄 대장의 입에는 산(山)이 매달려 있다. “산 같은 산악인, 산 같은 아버지, 산 같은 남편. 산 같은 아들. 산 같은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도울스님은 “산 같은 사람이 되려면 뭘 버리고 비우고 내려놔야 하는지, 한 알 한 알마다 그 마음을 빼라”고 안내했다.

염주 ‘꿰기’ 아닌 ‘빼기’부터

미워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며 그리하여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나를 믿고 법을 믿고 가는 게 불교예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불교는 이기적이라고 반문하더군요. 아니요. 나를 사랑해야만 진정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도울스님은 마지막까지 정곡을 찌르며 ‘도왔다.’

점심공양은 고기 한 점 없이도 맛있고 푸졌다. 짧은 체험이었지만 엄 대장은 일관되게 진지했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어쩌면 스님들의 위로는 수없이 목숨을 걸었던 그에겐 괜한 소리일 수도 있다. 원래는 산을 싫어했다. 산에 살았다는 건 산동네에 살았다는 것이고 철없을 때는 가난한 부모를 원망했다. 생각을 고쳐먹고 산에 다가가니까 산을 좋아하게 됐다. 산은 등정과 명예로 보답했다. 숱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부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부처님은 언제나 살길을 열어주었다. ‘엄홍길휴먼재단’을 설립해 히말라야 오지마을 어린이와 죽어간 동료의 유가족을 위해 애쓰는 그는 이미 산이다. 늘 산에 오르고 절에 머무는 그의 삶 자체가 ‘템플스테이’일 것이다.

스님들의 금언(金言)은 외려 그 자리에 없었던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천축사 법당에서 사람들이 드러누운 채로 울컥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마다 사연은 달라도 자기가 가엾게 여겨져서이고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인오스님이 먹먹한 가슴에 그만 구멍을 내고 말았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잘 산 겁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지만 생각 하나만 바꾸면 극락이다. 불교의 묘미이자 템플스테이의 묘미다.

기사제공: 불교신문(1월 5일) 장영섭 기자

연장근로시간 계산 대법원 판결,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촉각’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중소 공사업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공사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그간 공사비 산정 및 공기 설정 등에 대해 크고 작은 고충을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중소 공사업체의 업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 52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값이다. 종전에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68시간에 달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한 수치다. 그렇지만 2018년 2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7일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의 요지는 이렇다.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정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비롯해 일선 중소 공사업체에서는 이번 판결을 현장 인력운영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만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상 사용자의 요청을 반영한 통신망 개통 및 안정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작업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특히 통신선로설비 공사나 구내통신설비 공사는 물론, 정보망 설비공사 등 상당수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야간이나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현장 근로자 배치 및 작업시간 설정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기준점이 구체적 기준점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소 정보통신공사들은 과업 특성과 현장 여건을 적절히 고려해 시공인력을 투입하고 작업시간을 설정하는 게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 52시간제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게 됐다”면서 “주 52시간제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발주처에서 시공품질 확보와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산정 시 주 52시간제를 면밀하게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현행 근로시간의 법 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과 법원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정보통신신문(1월 19일) 이민규 기자

기자 수첩

연이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국민은 불안하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응급실 내 의료인의 안전이 끊임 없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강릉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의사는 환자의 머리가 낙상 사고로 심하게 부어있어 두개골 골절 또는 출혈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 CT 촬영을 제안했다. 이에 보호자가 "말투가 건방지다",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냐"며 의사를 폭행한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었다. 강원도의사회는 사건 보도 직후 성명을 통해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과 상시 보호 체계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한 지방일수록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 설계가 아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이다. 지역의료 및 응급체계 붕괴가 당장 코앞에 닥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숱하게 정책을 발표해왔는데도 걸핏하면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용인 다보스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및 방화미수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고자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TF'가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TF는 운영하는 8개월 동안 3차례 회의를 가진 뒤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섰다.

당시 TF에서는 기존 법안의 반의사불벌제 폐지와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두고 의정 간 논의가 이뤄졌다.

또 경찰의 대응 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왜곡된 응급실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제 폐지 등을 비롯한 안건이 법무부 반대 의견에 부딪쳐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이에 의료계에서 적지 않은 실망감을 드러냈던 바.

사건이 발생하면 급하게 정책 마련에 나서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 없이 해산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번 응급실 폭행 사건도 그 연장선일 뿐이다.

매번 반복되는 뉴스에 지켜보는 국민도 피로감 내지는 불안감을 느낀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현실적 정책을 통해 단기적이나마 성과를 거두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대정원 증원 논란, 이런 정부 처음본다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해도 너무한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관한 얘기다. 이정도면 무책임을 넘어 의도적이며, 유해(有害)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정협의체에서 "각계가 의사정원 규모에 대한 의견과 그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의협도 공식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적정한 의대정원 숫자를 써내라'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의협의 문제제기에, 정부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지자체에서 2000명에서 3000명, 최대는 600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게 발언의 근거다.

정 정책관의 주장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의대정원의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계할 일이지, 여러 사람의 '주장'을 듣고 다수의 의견이 모이는 쪽으로 결정할 사안 자체가 아닌 까닭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인구변화와 의료수요 전망에 근거한 객관적인 의료인력 추계 데이터는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정부조차, 단 한번도 그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할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의대증원의 과제를 떠안게 된 정부는, 불행하게도 의대증원 문제를 사회적 희망조사로 전락시켜버리는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 나아가 그런 희망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전문가단체에 "왜 너희만 못내느냐"고 윽박지른다.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책 결정의 권한이 정부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가진 당연한 권한이 아니라, 정부가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신뢰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의사 1명을 키우는데 수 억원의 직간접적인 교육비용이 든다. 의사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의료 수요를 창출한다. 의대증원은 지금으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때문에 한 나라의 의사 수는 미래 인구변화와 의료수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를 모르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없다. 그러나 모두가 모른체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를 정말 모른다고 한다면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기주의로 협동조합 정신 훼손하는 서울축협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협동조합은 자조·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를 표방한다. 이것을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라고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100주년 총회에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 등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천명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이다. 현재 지역축협 116개소 품목축협 23개소를 비롯해 지역농협, 품목농협 등 1천111개 조합이 회원으로 서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돕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협동조합을 꾸려간다.

이런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 일어나면서 연말연시 전국 축협을 뜨겁게 달궜다. 예수금만 4조원이 넘는 전국 최대 사업 규모를 지닌 서울축협의 품목축협(한우조합) 전환 추진이 그것이다. 도별 축협조합장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집된 축산발전협의회에서는 124명의 축협 조합장이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그대로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 전달됐다.

문제는 서울축협이 전국 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장이라도 농식품부에 서울한우조합 인가신청을 하게 될 경우이다. 농식품부는 축협 조합장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단 인가신청을 받으면 2개월 안에 답을 해야 한다. 만약 인가신청을 그대로 승인할 경우 전국 축협이 서울한우조합 설립을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

이 대목에서 서울축협이 왜 한우조합 전환을 추진하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조합 경영권을 둘러싼 내홍이다.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불거진 내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우조합 추진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 내분이 법정까지 이어지면서 한쪽에서 현행법상 전체 조합원이 직선제로 조합장 선출이 가능한 조합을 만들겠다고 꺼내든 카드가 한우조합이고, 다른 한쪽에서 이를 받아들인 결과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의 내분 사태 해결 방안에는 인근 다른 축협과 축산농가의 입장을 고려하는 '협동조합 간 협동'은 실종됐다.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훼손해도 전국 최대 규모 축협의 경영권만 확보하면 된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 다른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살펴보면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자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농협법상 조합설립인가 기준의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축협 조합장들이 건의하기 시작한 지 이미 20년 가까이 됐다. 만약 진작에 조합원 하한선이 현실화가 됐다면 서울축협처럼 거소,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조합원을 위해 품목축협으로 바꾼다는 구실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농식품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를 비롯해 축협 조합원 제도를 현장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 서울축협 역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되새기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 이커머스의 습격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국내는 흡사 '쿠팡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쿠팡 애용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젠 더 저렴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로 슬슬 갈아타는 모습이 보인다. 높은 가격 경쟁력과 뒤지지 않는 품질에 배송 속도로 제법 빠르다.

게다가 '중국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짝퉁, 품질불량, 배송불량 등으로 불신을 키웠던 과거 인식은 사라져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또 다른 친구는 우스갯소리로 "택배는 쌓이지만 통장잔고는 줄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얼마나 저렴하기에 그럴까 앱을 깔고 들어가 봤다. 파격 그 자체다. 첫 주문 전용 특가로 상품 3개 구매 시 1500원부터 판매했다. 주방용품부터 뷰티, 디지털, 패션소품, 가정용품 등까지 없는 게 없어 한동안 앱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정도였다.

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가 나오자 너도나도 이용 후기를 털어놓는 모습을 보니 중국 이커머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해있음을 실감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행보에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도 "쿠팡, 네이버 등 커머스 업체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산 품질이 국내만 못하더라도 지속되는 고물가에 소비자들 손길이 결국 더 저렴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보인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기업 데이터AI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쇼핑 앱 다운로드 1~3위를 중국 플랫폼(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이 싹쓸이했다. 2017년 미국에 진출한 쉬인은 이용자 수가 2억5000만명이 넘는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혁신적으로 나서야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외부 환경으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기간 급성장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하며 외형을 키워왔다. 하지만 엔데믹 시대가 오고 성장세가 둔화되자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광고와 마케팅 축소는 물론 비효율 사업 철수, 어떤 곳은 희망퇴직까지 받았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 국내에 물류센터를 직접 세우고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거라고 선포했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이커머스들 경쟁력 약화가 비단 업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나선 것도 위기 조성 요인 중 하나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기업들이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커머스에 대한 역차별로 성장에 제동을 걸지는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2024년 문체부 예산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기금 포함)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 원, 신규) 등이다.

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3-'24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3년 본예산 (A)	'24년 정부안 (B)	국회 증감			'24년 확정예산		
			증액 (C)	감액 (D)	계 (E=C+D)	최종 (F=B+E)	'23년 대비 증감(F-A)	'23년 대비 증감률(%)
합 계	67,408	69,796	1,395	△1,646	△251	69,545	2,137	3.2
예 산	34,941	36,283	999	△321	678	36,960	2,019	5.8
일반회계	30,446	31,463	781	△321	459	31,923	1,476	4.8
균특회계	2,980	3,700	168	-	168	3,868	888	29.8
아특회계	1,515	1,120	50	-	50	1,170	△345	△22.8
기 금	32,467	33,513	395	△1,324	△929	32,584	117	0.9
문예기금	4,079	4,271	192	-	192	4,462	383	9.4
영화기금	851	587	3	-	3	590	△261	△30.7
지발기금	88	78	10	-	10	88	-	△0.1
언론기금	204	190	2	-	2	192	△12	△5.9
관광기금	10,580	11,622	3	△600	△598	11,025	445	4.2
체육기금	16,666	16,765	187	△724	△537	16,227	△438	△2.6

〈민생〉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 대폭 증액

2024년 문체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가이다. 우선,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향유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침체된 문화예술 현장에는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꿈의 오케스트라'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67억 원→107억 원)을 강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예산을 새롭게 편성(17억 원, 신규)하는 등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이 돋보인다. 특히, 청년인턴 운영(9억 원→23억 원), 청년문화주간 개최(1억 원, 신규)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11만 원→13만 원)이 인상되고,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10만 6천 명→14만 명)과 지원 금액(월 9만 5천 원→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이 모두 확대된다.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건립(6억 원→56억 원) 등 노인세대 지원사업(468억 원→502억 원)과 장애예술인 지원(262억 원→291억 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예산(2,701억 원→2,855억 원)도 대폭 증액됐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자유 △미래 △균형 △활력 등으로 구분지어 각 항목별 예산을 확정했다.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

▪(신규) 지역공연예술단체 지원 : 90억 원 ▪(신규)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 47억 원 ▪(신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케이(K)-아트 특별전 : 17억 원 ▪(신규) 신진작가(비전속) 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지원 : 13억 원 ▪(증액)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432억 원('23년 187억 원) ▪(증액)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 100억 원('23년 27억 원) ▪(증액) 출판 수출 지원 : 81억 원('23년 68억 원).

〈미래〉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천4백억 원 공급, 수출기업 현장 밀착지원 등 콘텐츠산업 성장동력 강화

▪(신규)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지원 : 92억 원 ▪(신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후반작업) 양성 : 10억 원 ▪(증액)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 : 3,400억 원('23년 1,900억 원) ▪(증액) 게임산업 육성 : 679억 원('23년 661억 원) ▪(증액) 콘텐츠 해외거점 운영 : 219억 원('23년 102억 원) ▪(증액) 세계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 연구(R&D) : 85억 원('23년 20억 원) ▪(증액) 국외 한국어 보급(세종학당 등) : 610억 원('23년 562억 원).

〈균형〉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

▪(신규) 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 구축 : 125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80억 원 ▪(증액) 관광산업 융자지원 : 5,417억 원('23년 4,491억 원) ▪(증액) 문화도시 조성 및 앵커사업 지원 : 390억 원('23년 364억 원) ▪(증액)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 278억 원('23년 55억 원) ▪(증액)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 193억 원('23년 2억 원) ▪(증액)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 30억 원('23년 3억 원).

〈활력〉 스포츠산업 및 전문·생활체육 지원확대, 인문학을 통한 심리지원 등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기대

▪(신규)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464억 원 ▪(신규)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 30억 원 ▪(신규) 문화로 사회연대(인문활용 심리지원) : 19억 원 ▪(증액)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 1,637억 원('23년 800억 원) ▪(증액) 스포츠클럽육성 : 303억 원('23년 293억 원) ▪(증액)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출자 : 300억 원('23년 100억 원) ▪(증액) 파리올림픽 계기 스포츠·예술 등 올림픽 마케팅(합계) : 201억 원('23년 86억 원).

이 밖에도 인문 문화 활용 심리지원을 제공(19억 원, 신규)해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 근절 등 장기 캠페인을 확대(40억 원→47억 원)하는 등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재단)은 2024년 사업설명회를 지난 1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및 유튜브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식 계정을 통해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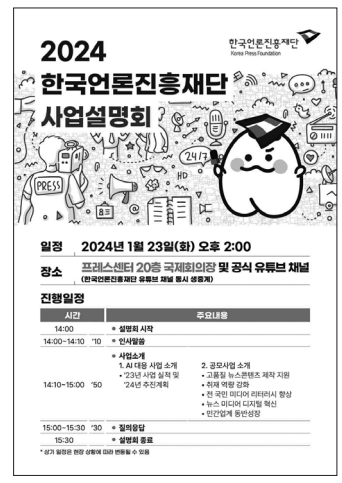
재단은 언론인 해외장기연수 참가자를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사업비 예산을 전년(약 898억 원) 대비 5.8% 증가한 약 95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재단은 올해 AI 대응 예산을 총 153억 규모로 편성해 17개 관련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의 대두와 함께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언론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생성형 AI 기술을 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 적용해 사용자가 질문하면 기사를 근거로 답변하는 '빅카인즈 AI'를 1분기 중 일반 공개한다. 전년도에 '언론인 대상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관련 전문교육 및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AI 관련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 개발과 교·강사 AI 연수 과정을 지속 실시하며, AI 기술 등을 활용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언론사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올해 재단은 총 950억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고품질 뉴스 콘텐츠 제작 지원' 분야에 약 83억 원, '취재 역량 강화' 분야에 약 23억 원,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분야에 약 109억 원, '뉴스 미디어 디지털 혁신' 분야에 약 96억 원, '민간업계 동반성장' 분야에 약 293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언론인금고 융자사업은 약 264억 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약 83억 규모로 추진한다.

△고품질 뉴스 콘텐츠 제작 지원 분야의 주요 사업인 기획취재지원을 통해 신문·인터넷신문·잡지·방송의 심층보도를 지원한다. 언론의 자율심의를 지원해 사회적 책임성 증진도 도모한다.



△취재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해외장기연수를 확대 실시해(5인→10인)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강상태였던 해외교류를 활성화, 다양한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언론인을 양성한다. 저널리즘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 대학(원) 대상 언론인 저널리즘 특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한다.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분야에서는 AI 리터러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관 최초 민간자격제인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1·2급)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강사를 양성,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기여한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신문 공동수송 및 우송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 미디어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개발,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뉴스콘텐츠 공용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 언론의 디지털 대응력 강화를 지원한다. 신규사업인 AI 메타 데이터 생성 사업을 통해 재단이 보유한 연구·조사 통계 및 간행물 자료 등을 메타데이터로 구축, AI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다섯 번째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토의하여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획일적 적용보다는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회원사 인사

농수축산신문

△총무팀장/차장 홍상미
△농식품팀 수석기자 이문예
△총무팀 대리 박민지
△홍보사업팀장/과장 홍지혜

약사공론

△광고마케팅본부장 배성준
△편집국장 감성균
△영상출판국장 임채규

어패럴뉴스

△박선희 이사 편집국장
△박해영 부장 편집부국장
△오경천 취재부 부장
△전선희 편집부 부장
△정민경 취재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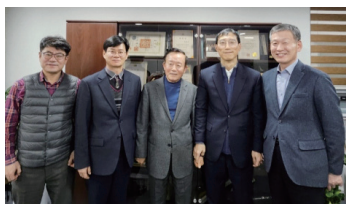
회원사 동정

국세신문

중부지방국세청 한창목 조사2국장 내방

국세신문 이한구 발행인이 내방 차 방문한 중부지방국세청 한창목 조사2국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한창목 조사2국장은 이한구 발행인과 국세 행정 현안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는 임상훈 조사관리과장도 함께했으며 국세신문에서는 이승겸 편집국장, 이춘규 편집위원이 참석했다.

주간 식품저널

2024 스페인 식품박람회 참관단 모집

식품저널(발행인 강대일)이 '2024 스페인 바르셀로나 식품박람회(Alimentaria 2024)' 참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럽 3대 식품박람회의 하나로 유명한 박람회이다.

이에 식품저널은 2024 스페인 바르셀로나 식품박람회 공식 미디어 협약을 계기로 참관단 모집을 기획, 최신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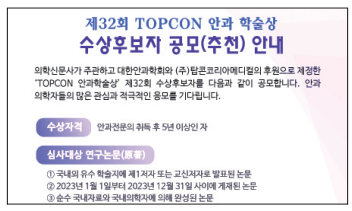
이번 박람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바르셀로나 Gran Via 전시장에서 열린다. 무역 박람회인 인터칸(Intercarn)과 레스토라마(Restaurama), 호텔코(Hostelco) 등과 함께 열려 식품·외식·호텔 산업 전반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상세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식품저널 홈페이지(www.foodnew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77-7114

의학신문

제32회 톱콘 안과학술상 후보자 공모



의학신문(발행인 박연준)이 '제32회 톱콘 안과학술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자격은 안과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추천서(추천교수 자필 서명, 타 대학 및 기관 논문 추천 가능) △이력서(일반 양식) △주 논문 1편 및 관련 논문 3편 이내(관련 논문은 최근 5년 이내 발표된 논문으로 주 논문과 연광성이 있는 업적)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1월 31일까지 우편(서울시 광진구 통일로 357 의학신문 편집국) 및 이메일(bjahn@bosa.co.kr)로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3월 30일 대한안과학회 제131회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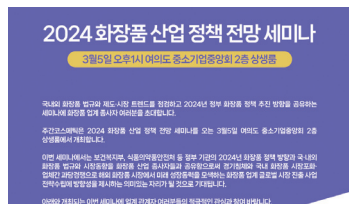
문의: 02-3408-5805

주간 코스메틱

2024 화장품 산업 정책 전망 세미나

주간코스메틱(발행인 김영결)이 '2024 화장품 산업 정책 전망 세미나'를 오는 3월 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의 2024년 화장품 정책 방향과 국내외 화장품 법규와



시장동향을 화장품 산업 종사자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경기침체와 국내 화장품 시장포화 및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해외 화장품 시장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화장품 업계 글로벌 시장 진출 사업 전략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주간 식품저널 홈페이지(www.geniepark.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418-8032

韓國 基督公報

한국기독공보-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업무협약

한국기독공보(사장 안홍철)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청년세대의 회복과 부흥, 군선교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국기독공보 이사장 김의식 목사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서명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비전2030운동'의 성공적 완수 및 군선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보도'와 '문서선교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게 된다.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한국ESG경영원-한국사학진흥재단 업무협약

한국대학신문(발행인 홍준)과 한국ESG경영원(원장 홍남석)이 한국사

학진흥재단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고도화를 위해 3자간 ESG경영 확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참여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학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ESG경영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사항은 △대학 ESG경영 가이드라인 개발 △대학 ESG경영 인증체계 구축 △대학 ESG경영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한의신문(발행인 홍주의)을 발행하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 산재보험 정책 및 제도 개선과 함께 발전된 노무 관리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만기 부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안성희 부회장·유재원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근로자의 한의의료 산재보험 및 산재심사 등의 제도 개선 △근로자의 한의약 건강관리와 발전된 노무관리 확산을 위한 사업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 부분에서 협력키로 했다.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sna.or.kr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 임원사
이 컷은 본 협회 회원사임을 나타내는 표시

회장·발행인 박두환 명예회장·편집인 양영근 편집고문 김시중
부회장 이한구·백용태·정재환·김관홍 | 상임고문 방재홍
이 사 이상호·이군호·양기방·박연준·오경섭 | 감 사 이관치·허과현
강현옥·강신영·홍 준·김광탁·방두철 | 고 문 한기호·함용헌·유태우·이덕수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1964@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한국씨티에스

35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한국전문신문협회 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34년 전통 인쇄 기술력

35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H)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시스템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층
Tel. 관리부 02) 362-1199 / 영업부 02) 362-6677 / 전산실 02) 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부일로 815번길 56-67 (온수동)
Tel. 02) 2684-3377

2023년 12월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간: 2023.12.01.~2023.12.31.〉

등록번호	제호	회사명(법인명)
경기 다50772	교회와 시정저널	(주)이디엘
인천 다06146	인천시니어매거진	인천시니어매거진사
전남 다00444	전남자치일보	(유)영암군민일보사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2022서울조정2200·2201 정정·손배청구

시민단체 성명 발표 등을 인용한 특정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표현한 보도와 관련, 시민단체의 반론을 게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의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허위보도'의 사례로 신청인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 등을 인용한 특정 언론매체의 보도를 언급하고, 해당 매체를 상대로 모 노동조합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반론보도가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시민단체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 단체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취지의 모 노동조합 측 인터뷰와 함께 신청인 단체의 입장을 허위라고 단정 보도해 사회적 평판이 저해됐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며, 신청인 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모 노동조합 측의 인터뷰는 논평에 해당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반론보도와 조정대상보도 제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재부는 양측이 문안을 협의해 반론보도 게재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본문의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 회원사 발행인 칼럼 | 팜앤마켓 **최서임** 발행인

농업의 다빈치코드

톰 행크스, 오드리 토투 등 세계적인 배우들이 열연한 영화 '다빈치코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와 종교, 역사, 음모 등의 이야기가 긴장감과 생각을 자극하는 스릴러이다.

2024년이 되자,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몹시 궁금하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년운세를 보았다. 축적된 IT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손쉽게 정보를 접했다.

올해 농촌진흥청 예산 규모는 2023년 1조 2,547억 원보다 1,573억 원 감액(12.5%)된 1조 974억 원 규모이며, 사업비는 9,056억 원이라고 한다.

농진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며 농업농촌 활력화와 영농현장 해결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왔지만, 올해 예산을 삭감됐다.

농촌진흥청의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지역 농업을 담당하는 지방 농촌진흥청기관에서는 농촌진흥사업의 농업인들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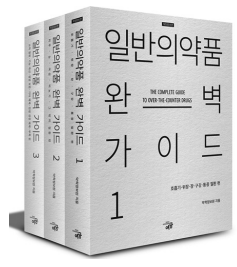
농업 연구개발(R&D)이 혁신 기조에 맞게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식물의 잎사귀가 황금비율의 배열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듯이, 더 포괄적인 R&D가 필요하다.

탁월한 품종 개발과 기술일지라도 반응하지 않거나 지속되지 않는 농업 현장일 때도 있다. 당장 성과가 없다라도 농업의 다빈치코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농업을 산업화로 이끄는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다. 끈길진 연구와 지도사업을 확장할 때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은 실현될 것으로 본다.

농업의 다빈치코드를 풀어나가는 농촌진흥청의 그 가치를 아직 발견하기 못함이 아쉽다.

책 자 발 간

약사공론 일반의약품 완벽 가이드



약사공론(발행인 최광훈)은 '일반의약품 완벽 가이드'를 발간 2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 책은 지난 2021년 출간돼 미국약사회가 제작해 임상약학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비처방약 핸드북'에 필적할 만큼 구성과 내용에 약사회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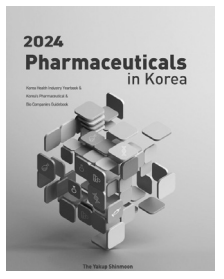
약사공론과 약학정보원이 함께 기획해 제작된 '일반의약품 완벽 가이드' 증보판은 국내 유일의 의약품 정보 제공 공익 기관인 약학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각 질환별로 현재 약국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목록과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풍부한 학술 자료와 질환별 병태생리와 약물학에 대한 근거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의약품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핵심 정보를 저술했다.

이번 개정 증보판은 1권 1부 호흡기 질환에 '코로나19'를 추가로 반영한 것은 물론 2권 비뇨기 질환에 '전립선비대증' 부분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3권에는 '소아 질환'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삽화를 새롭게 추가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가격: 11만원

문의: 02-581-1301

약업신문 'Pharmaceuticals in Korea' 2024년판



약업신문(발행인 함용헌)은 'Pharmaceuticals in Korea' 2024년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현황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제약 관련 단체소속 상장/비상장 제약바이오기업 250여 곳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영문 책자이다.

2024년 개정판의 경우 개별기업 연구개발(R&D) 관련 파이프라인 보유 및 진행상황, 기업의 3대 경영지표 연도별 현황을 그래픽과 이미지를 활용, 시각화 하여 한 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투자정보/구직정보/기업홍보를 필요로 모든 비즈니스 니즈에 대해 원스톱서비스 자료 및 정보를 담고 있다.

본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개황, 기업소개 편으로 구성됐으며 △기업정보(회사소개 및 주요연혁, 본사 연구소, 사업목적) △경영정보(주요주주현황, 경영진구성, 주요제품매출현황, 생산실적, 연구개발현황) △재무정보(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이 수록됐다. 더불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제약기업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담고 있다.

가격: 50달러(한화 6만원)

문의: 02-3270-0114

축 2월 창간기념일을 축하합니다

2월1일(1988년)	기독교연합신문	2월10일(2010년)	국제경찰신문
2월3일(2007년)	농업축산신문	2월20일(2004년)	이뉴스투데이
2월5일(2001년)	정보통신신문	2월22일(1993년)	한국약국신문
2월8일(1990년)	한국해운신문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정보 홍수시대에 전문신문은 광고매체로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시장이 명확하다. 광고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오래 보존됨으로써 광고의 생명이 길다.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통경로에 쉽게 접근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